

73. 요한 묵시록

요한 묵시록은 수많은 표상과 상징이 등장하며 성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 표현이나 내용도 매우 생소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여겨집니다. 나아가 사이비 종교인들이 잘못된 해석들을 내놓아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파국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묵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냄, 비밀을 공개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이라는 말은 종말에 관해서 신비로 가득 찬 내용을 밝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책, 묵시를 통해서 하느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탈혼 상태에서 하느님의 뜻을 영상으로 보고 그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책으로 그 표현들은 당시 박해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신자들끼리는 통하는 일종의 은어나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상징적인 표현들은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알아듣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로마 세계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기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방대한 영토의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황제의 절대 권력을 끊임없이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모든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를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황제 숭배 의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느님께만 경신례를 바침으로써 순교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마지막 날에 영광을 받으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며 환시를 설명합니다.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양이 하나씩 개봉하는데 일곱 번째 봉인이 개봉되자 본격적인 하느님의 징벌이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예고하는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일곱 천사가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일곱 대접들을 땅 위로 쏟아내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탕녀 바빌론은 장엄하게 멸망합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사탄은 완전히 제거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의 책이 펼쳐지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각자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승리를 기다리며 박해와 죽음을 견뎌 온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환시는 끝을 맺으며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요한 묵시록은 종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하느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종말이란 멸망이 아니라 하느님 창조의 완성입니다.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지만 빛의 자녀에게는 희망과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묵시록을 읽으면서 미래를 헤아리기보다 현재에 주어지는 표징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늘 깨어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옳습니다.